

무안 '오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본격화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사업비 255억 투입 문화·행정·복지 등 지역 생활문화 거점 기대

무안군 오룡지구의 문화·편의 시설 부족을 해소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된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추진 중인 오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오룡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498㎡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생활문화센터, 오룡출장소, 육아나눔터, 건강지원센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시설이 들어선다. 올해 행정절차 진행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면 늘어나는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는 영산호에 접한 31만㎡ 규모의 수변공원과 함께 차랑간섭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총 17km의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워커블시티의 콘셉트로 조성됐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한 오룡지



구에는 아파트 등 8000여 가구가 들어서며 2만 1000여 명이 거주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오룡복합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행정·복지 수요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이 될 것"이라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고 함께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문 기자

담양상설시장서 12일 '장터유랑단' 공연 다미담예술구 12~13일 프리마켓 운영도

전남도 장터유랑단 공연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담양상설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전남도 장터유랑단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해 열리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줄타기, 동동구루무, 큰기놀이, 오페라 갈라, 무용, 솟대놀이, 마징밴드, 옛장수, 버스킹, 사자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담양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눈과 귀가

즐거울 흥겨운 한마당을 선물한다. 아울러 담양상설시장과 다미담예술구 일원에서 12일과 13일 자유시장(프리마켓)을 열어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판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옛 시절의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져 담양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눈과 귀가

영광, 화재안전 취약계층 전열기구 사용실태 일제 조사

영광군은 화재사고에 취약한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전열기구 사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가구의 낮은 전열기구 등 사용 실태 파악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 전기장판 사용 여부, 낡거나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실태, 주먹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며 마을 담당 공무원 등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전한 전열기구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주민 스스로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실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이 높은 가구에는 노후 전열기구 교체 지원,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배부 등 맞춤형 안전 조치를 취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순천, 자동심장충격기 18일까지 일제점검

순천시는 시민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공공기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사업장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비 정상작동 여부 확인 ▲설치안내판 부착 여부 ▲월 1회 자체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응급처치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미흡한 장비를 신속히 보완하고 긴급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장비이므로,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을 계기로 병원 전 단계-병원 단계-치료 후 단계로 이어지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역안전결함의료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영암 월출산 설화 담은 애니메이션, 서울국제AI영화제 대상

생성형AI로 제작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남자' 단편 부문

영암군은 월출산의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남자'가 제2회 서울국제AI영화제에서 단편 애니메이션(Best Animation Short)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한국콘텐츠개발원이 영암군과 함께 지난해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작한 작품이다.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남자'는 영암군 대표 자연자원이자 관광지인 월출산의 설화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



공지능(AI)으로 제작됐다. 영암군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남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17분의 러닝타임에 담고 있다. 작품은 현재 영암군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

에서 볼 수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예부터 내려오는 월출산 설화가 최첨단 기술과 만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했고, 영화제가 영암의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선택해줬다"면서 "영암의 수많은 보물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영암의 맛과 멋, 사람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국제AI영화제는 'AI가 만든 영화,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Beyond Code, Into Story)'를 주제로 전 세계 14개국에서 출품한 258편 작품 중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암=김형두 기자

함평나비축제에 전국 버스킹·댄서 무대 오른다

26~27일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 5월3일 나비댄스 경연대회 본선

함평군은 제27회 함평나비축제를 맞아 축제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전국 버스킹·나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버스킹 경연대회는 26일과 27일, 나비댄스 경연대회는 5월 3일 개최하며 참가 접수는 11일까지 진행된다. 버스킹 경연대회는 장르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을 거쳐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함평군은 예술성, 숙련도, 관객호응도, 팀원 및 장르 다양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140만원, 참가상 210만원 등 총 9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한다. 본선 무대에는 가수 임재현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어 관람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비댄스 경연대회는 나비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겨루는 대회로 14일 동영상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며 본선 무대에서는 총 15개 팀이 겨룬다. 함평군은 춤의 창작성과 완성도에

따라 금상 300만원, 은상 150만원, 동상 100만원, 인기상 50만원, 아차상 30만원 등 총 12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은행 전남본부에서 후원한다. 나비댄스 경연대회에는 엘리트댄스 크의 퍼포먼스와 가수 단단의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져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함평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함평=지대만 기자

목포시 의약단체, 유달산 마라톤대회 의료지원 '눈길'

목포시 의약단체는 지난 6일 열린 '2025 유달산 마라톤대회'에 의료지원 인력을 파견해 참가자들의 안전한 완주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목포종합경기장 ~ 유달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목포의 주요 관광명소를 따라 구성된 하프코스는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의료지원원은 목포시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뤄졌으며, 의사 2명과 물리치료사 10명을 포함한 전문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여기에 목포시한의사회와 목포시약사회도 함께 참여해, 총 16명의 의료인력이 마라톤 현장에서 활약했다. 의료지원에는 ▲황다윗 원장(다윗 365내과재활의학과의원), ▲김병진 원장(하당탑튼튼의원)이 참여했으며, 물리치료사는 ▲다윗365내과재활의학과의원 2명, ▲목포신세계병원 2

명, ▲목포현대병원 2명, ▲목포정형외과의원 2명, ▲하당탑튼튼의원 2명으로 총 10명, ▲목포한의사회 한 의사 2명, ▲목포시약사회 약사 2명이 참여했다. 의료지원팀은 대회 당일 근육경련, 타박상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했으며, 출발 전 스포츠 테이핑을 600건 이상 시행해 참가자들의 부상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강진, 외국인 유학생 양성 요람으로 떠올라

베트남 유학생 7명, 전남생명과학고 첫 입학... 지역 인재 성장 기대

강진군이 베트남 등 외국인 유학생 양성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4일 7명의 베트남 해외 유학생이 전남생명과학고에 입학했다. 이들은 베트남 남부 하우장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이중 2명은 강진군 자매도시인 하우장성 풍림현에서 왔다. 강진군은 전남 유일의 농업 분야 마이스터고인 전남생명과학고와 함께 베트남 유학생을 매년 10명씩 선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하우장성을 직접 방문해 해외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6

월에는 하우장성교육청과 유학생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학생 모집 후 한국어교육 이수와 현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7명을 선발했다. 입학 전에는 베트남,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우려도 많았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난 현재 베트남 학생과 강진 학생들이 서로 친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친밀한 유대관계와 글로벌 역량을 높여가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2일

전남생명과학고를 찾아 베트남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해외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을 위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전라남도, 지자체와 함께 해외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관심을 쏟을 전망이다. 강진군은 전남생명과학고에 입학한 베트남 학생들에게 입학 비용,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도 생활 지원을 위해 매년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강진=김경성 기자

광양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 내년도 예산 반영

광양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광양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있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제안 분야는 ▲보육환경 조성사업 ▲청년 희망, 여성 안전, 어르신 건강 도시 지향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사업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 등 2026년도에 반영될 예산사업이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보조금 사업 및 타 기관 소관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청·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등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공모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우선 사업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진다.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는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시의회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광양=조순의 기자

'진도에서 살아보기' 인기 만점

2개 마을에 33가구 신청... 귀농·어·귀촌 인구 유도

진도군은 지난달 31일에는 남도 전원한옥마을에서, 4월 3일에는 길은푸르미마을에서 '진도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입교식을 개최하고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진도에서 살아보기'에는 2개 마을에 33가구, 총 39명이 신청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군은 신청자 중 11가구, 총 13명을 선정했고, 입교식에서 참가자와 지도자(멘토) 소개, 사업 설명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해당 마을에 거주하면서 일자리 체험, 지역 탐방, 주민과의 교류, 영농·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진도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인 남도전원한옥마을은 올해 한옥에서 생활하며 정원·화훼 가꾸기,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등을 진행

하고, 길은푸르미마을은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우수 마을'로 선정(투어), '민속문화 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 인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 사업,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청·장년 창업·어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67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어·귀촌 희망자에게는 정주 기반을 탐색하는 기간에 귀농인의 집(7개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개축(미도텔링)한 빈집을 귀농·어·귀촌 정착자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2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박재영 기자

완도, 지속 가능 발전 4대 전략 수립 완료

기후 위기 대응 소통 행정 등 4대 전략 17개 목표 설정

완도군은 환경, 경제, 사회,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완도군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전략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 경제 구축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참여·협력·소통 행정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 협치 강화 등 4대 기본 전략과 17개 설정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이에 해조류 활용 탄소 중립 실현,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해양쓰레기 저감 및 자원 순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의 대표 산업인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식의 산업으로 전환하고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안정적인 인구구조 구축을 목표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전략을 바탕으로 실현 과정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군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도=이두식 기자